# 취임 300일 진우 스님, '청년 소통' 광폭 행보

## 7월 24일 부산 쿠무다 콘서트홀서 청년 대상 '불교 문화 토크 콘서트'

부산 · 글=신성민 기자, 사진=이도경 부산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4일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문화 토크 콘서트에서 명상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우 스님, 명상 수행 중요성 강조**
**"苦樂 분별 놓는 것이 불교의 성불**
**하루 1~5분이라도 명상해 보세요"**

**청년 합장 등 다양한 공연 진행돼**
**지역 불교 리더들과 108배 정진도**
**7월 25일엔 예천 수재민 위로 방문**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7월 24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 를 개최했다.

"지금 괴로운가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총량도 같죠. 결국, 우리가 괴로움을 내려놓으려면 즐거움, 괴로움이라는 '분별' 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별' 을 내려놓는 훈련,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강연장을 울렸다. 좌석을 메운 20~30대 청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는 7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 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 토크 콘서트는 진우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300일을 맞아 열린 것으로, 최근 한국불교계의 화두가 된 '대학생 · 청년 전법' 진흥을 위한 진우 스님의 '광폭 행보' 이기도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이오상 KNN 대표, 노찬용 성심학원 이사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하고 영화 '변호인' 의 양우석 영화감독이 사회를 맡은 이날 문화 토크 콘서트는 명상과 문화 포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진우 스님은 이날 자리한 2030세대에게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진우 스님은 우리가 명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부터 알아야 함을 역설했다. 스님에 따르면 의식의 구조는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전5식 · 6식' 과 아상의 집착심인 '7식 말라식' , 근본의식인 '8식 아뢰야식' 등 8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의식과 감정을 갖는데, '정' 이 있는 사람을 '유정' 이라고 하며, 이를 뛰어넘으면 부처가 된다는 게 진우 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차생고피생 차멸고피멸(此生故彼生 此滅故彼滅 ·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을 상기시킨 진우 스님은 결국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이것과 저것, 큰 것과 작은 것, 일출과 일몰, 생과 사 등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두 개로 이뤄져 있다"며 "일출 예정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일몰 예정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즐거움과 동시에 괴로움 역시 예정돼 있는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그 질량이 같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락(苦樂)의 반복이 곧 윤회다. 삼선도, 삼악도가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삼선도와 삼악도를 오간다"면서 "격하게 끓어오르는 고락의 반복을 줄여 나가는 수행이 바로 '명상' "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말하는 '성불(成佛)' 이 '분별' 을 내려놓는 것임을 밝히며, "내려놓은 그 순간에 곧 '중도' 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들에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감정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방하착(放下著)' 하는 명상 수행을 해볼 것을 독려했다.

진우 스님은 "명상의 목적은 고락이라는 정을 최소화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라며 "내 자신이 삼독심에 빠지지 않도록 참선이든 염불이든 행선이든 명상 수행을 해보길 바란다.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요즘 유행한다는 멍때리기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에 1~5분씩 명상을 해봐라.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진다"면서 "명상은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야기 손님들은 불교와의 인연 · 신행담과 불교 진흥을 위한 제언들을 내놨다. 특히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세계적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에게서 한국불교와 대학사회의 돌파구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우연한 기회에 BTS의 'Answer: Love Myself' 를 듣게 됐다는 부 총장은 "노래가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고찰하다가 종국에는 '나는 누가 뭐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 고 한다. '러브 마이 셀프(Love Myself)' 는 BTS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불교의 법당 · 선방과 와 대학의 강단에서 말했던 화두 · 명제를 2030세대 또래인 BTS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불교도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분명 세대를 뛰어넘는 포용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화 토크 콘서트는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의 연주, 청년 불자들과 함께하는 찬불가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됐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300일을 맞아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과 청년 불자들이 함께하는 오늘 문화토크콘서트는 불교가 '문화' 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며 "오늘 콘서트로 불교가 문화를 통해 대학생 · 청년 세대에게 치유와 희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기성세대들에게는 신심을 증장시키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불법의 인연을 맺도록 하는 포교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며 "이번 문화콘서트는 문화예술의 공간 쿠무다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 행복을 발원합니다" 300일 이어진 '108배 정진'

## 진우 스님 '격외의 정진', 쿠무다 하늘법당서 108배

###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기원 호우 희생 · 피해자 위한 위로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차 108배 정진을 7월 24일 부산 쿠무다 8층 하늘법당에서 진행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후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수행을 이어오며 불교수행문화 확산과 국민 행복 발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대학생 및 청년들과 진행할 문화콘서트에 앞서 진우 스님은 먼저 쿠무다 하늘법당을 찾아 참배했다. 108배 정진에는 진우 스님과 함께 방문한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을 비롯해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쿠무다 대중들이 동참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정진 후 대중을 향해 소감과 함께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부처를 이루어야 하며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바라밀 실천과 수행을 통해 맑아져야 한다. 번뇌 망상을 털어내고 백팔 번뇌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로 매일 108배를 하고 있다. 모든 대중들이 함께 실천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108배 수행의 목적을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수행의 또 다른 목적은 나라의 발전이다. 국민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기를 염원에 담았다. 지금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고 희생된 분들이 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함께하고자 한다"며 "특히 부산은 저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특별한 도시이다. 부산 엑스포가 줄 경제효과와 파급력은 부산을 경제 도시, 문화도시로 성장하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이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정성을 기울여주셔서 엑스포가 유치되도록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8배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기원해주시고 수해 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산이 화평하고 정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아 주신 정성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중들은 5층으로 자리를 옮겨 차담을 진행했다. 차담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37대 집행부 스님 및 박형준 부산시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강관범 53사단장, 노찬용 영산대 이사장 등이 동참했다.

내빈들이 차담을 위해 자리에 앉자 어린이가 나와 편지를 전달하며 진우 스님의 방문을 환영했고, 진우 스님은 어린이가 전달한 편지를 직접 읽으며 환영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도 전했다.

108배 정진 후 전한 소참법문에 이어 진우 스님은 부산 불교박람회 개최를 통한 불교문화 진흥과 K-명상을 통한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서울에서는 매년 불교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30만 명 이상이 참여해 관심을 보이는 수준 높은 불교 문화 박람회"라며 "한자리에서 수준 높은 불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부산에서도 박람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교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면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재 및 사찰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차 108배 정진을 7월 24일 부산 쿠무다 8층 하늘법당에서 진행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